

# 도서관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보는 북한도서관 연구

## A Study on the North Korean Library on the Base of the Relation Between Library and Society

신은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mjunksej@hanmail.net  
백진경,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greenolive@hanmail.net

Eun-jung Shin, Jin-kyoung Baek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Sung Kyun Kwan Univ.

도서관은 '인간의 기록지식을 사회적 기억으로서 체계있게 조직하여 제공하는 사회기관'으로, 도서관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이다. 셰라(Jesse H. Shera, 1903-1982)는 문헌정보학계의 교육자이며 철학자이며 이론가로, 도서관이란 무엇인가를 사회적 측면에서 깊이 연구한 학자이다. 이러한 셰라의 도서관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한 사상을 중심으로 북한도서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과 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이에 대해 북한사회와 북한도서관이 갖는 관계는 어떠하며 북한만이 갖는 특수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도서관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 1. 서론

사회주의 국가들의 빠른 변화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북한 또한 변화의 조짐을 보임으로서 북한에 대한 각계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부응으로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북한 도서관에 대한 보고서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반세기 동안의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로 인해 북한 연구에 있어 우리식 잣대의 편향된 시각으로 북한 연구를 하게 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셰라의 도서관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북한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고찰해 봄으로써 조금이나마 객관적 시각의 북한도서관의 사회적 위치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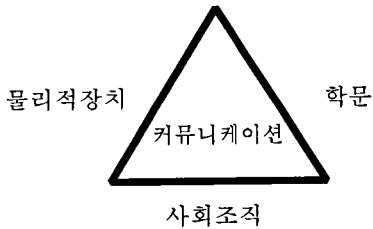
### 2. 도서관과 사회

#### 2.1 사회와 문화

도서관은 사회의 창조물이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도서관의 발전은 지식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를 지탱해 주는 가치체계 및 조직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렇듯 사회는 도서관의 수탁자이므로 도서관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한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레드필드(Robert Redfield)는 사회란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함께, 서로에 대해, 서로를 위해 모든 사람

이 수용해 온 방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며”이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는 협력하는 개인들의 집단이며, 사회는 항상 조직과 구조, 통제, 수용된 또는 수용 가능한 신념체계 및 가치체계를 지녀야 하는데, 이 때의 사회를 유지하려는 밀착된 힘이 문화이다. 문화란 “일반적인 이해의 조직화 및 통합”이며, “인간의 이해와 이념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의 본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문화

그림에서 왼쪽은 작업이 진행되는 데 필수적인 도구 및 기타 장치들인 물리적 설비를 나타낸다. 문화의 발달 정도가 그 문화의 물리적 설비의 정교성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

오른쪽은 학문의 영역이다. 즉 증명된 지식체, 이론, 신념, 경험, 신화, 전설 및 상상적 창조물 등과 같은 구성원들에 의해 축적된 모든 지식의 총체이다. 이 학문으로부터 철학체계나 구조를 도출해내고,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발견하며 만족스러운 지적, 정신적 조화를 이룩해야 하는 우주 전체와 관련된 것 모두를 도출해낸다.

삼각형의 밑면은 문화에 실체를 부여하고 추진하는 정부기관이나 제도인 사회조직을 나타낸다. 하나의 문화가 문화로써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과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이렇듯 한 문화가 존속되려면 이러한 물리적

장치, 학문, 사회조직 세 측면이 합리적인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지나치게 지진하거나 너무 빨리 선진적이 되어 간다면 그 문화는 왜곡되게 된다.

또한 위 그림과 같이 문화의 중심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위치해 있어야 한다. 문화란 사회의 전달을 위해 매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와 문화를 하나의 결집체로 묶어주기도 하고, 사회 내에서 통제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 때 도서관은 사회적, 문화적 대행기관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그 기능을 발휘한다.

## 2.2 사회기관으로서의 도서관

도서관을 사회조직에서 ‘제도’와 ‘기관’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 중 셰라(J.H.Shera)는 도서관은 사회기관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제도란 사회적 창조물, 사회적 방편이며, 이를 통해서 문화는 이루어지고 보존된다. 그것은 사회구조, 특히 문화구조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이와 같이 제도는 매우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제도란 그 사회 조직상에 투영된 문화의 신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반영이다. 그것은 사회를 결합시키는 기본적인 힘이며, 이 힘이 없이는 그 사회는 붕괴되어 버리거나 해체되고 만다.

이와 비교해, 기관은 사회적 방편을 말하며, 제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관을 통해서 제도가 시행되는 방편이다. 교육 혹은 지식이 하나의 제도라면 학교 및 도서관은 기관이며, 기관은 변화를 주도하고 일으키기보다는 사회 변혁을 쫓아서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반영하는 경향을 지닌다.

셰라는 도서관과 개인, 도서관과 사회, 도서관과 지식을 연관시켜볼 때 개인과 사회, 사회적 사회조직, 사회조직으로서의 도서관은 사회적

기억(일종의 사회적 정신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개인적 기억은 어느 곳 어느 때나 연상이 될 수는 있지만, 계속성이 없고 정확성이 항상 문제가 되어 만인의 공유가 어렵지만, 이에 비해서 사회적 기억은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수집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었을 때 훌륭한 사회적 유산으로서 개인의 학습을 돕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서관은 '인간의 기록지식을 사회적 기억으로서 체계있게 조직하여 제공하는 사회기관'이다. 즉 도서관을 사회제도가 아닌 '사회기관'으로 인식하였다.

### 2.3 장서개발의 본질

지식, 특히 기록된 지식은 도서관과 사서의 중요한 업무이며, 관심사가 되어야한다. 전문지식의 전달이 중요하며 지식이 최고의 선으로 존재하지만, 취미의 개발, 오락적 독서의 즐거움, 다양한 모험에서의 흥분 등이 모두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필요하며, 이들은 도서관 서가에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책들이 함께 모여 도서관 각각의 목적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잡다한 책 덩어리가 도서관은 아니며 그것은 단지 책들의 집합체이다. 도서관과 사서는 지혜를 증진시키는 인간지식의 통합체를 구현하여 인간지식을 정리하고 관계를 갖게 해준다. 다른 도서관의 다른 도서와 함께 구성하는데 선택된 도서, 즉 이제는 도서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진 한권의 도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이며 도서관과 사서의 책임이다.

### 2.4 사회의 알권리

도서관은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기관이다. 도서관 자료는 인종, 국적, 사회, 정치, 종교적 견해 때문에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또한 그러한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도서관 자료와 이용자

모두 알리고자 하는 것들은 사회에 알리고 또 알리고자 하는 것들은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다음은, 미국도서관협회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위해 선언한 '도서관 권리장전'의 내용이다.

1. 도서관 서비스의 책임으로써 도서와 기타 선택된 문헌자료는 모든 사람의 의사소통에서 깨우침과 관심, 정보라는 가치를 위해 선택되어야한다.
2. 도서관은 우리시대의 사건이나 문제에 관한 모든 견해를 보여주는 도서나 기타 자료들을 제공해야한다.
3. 공공정보제공과 계몽에 대한 책임을 유지함에 있어 도서관은 검열에 도전해야한다.
4. 도서관은 사상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자유로운 표현의 박탈에 저항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단체와 연합해야한다.
5. 도서관 이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개인의 연령, 인종, 종교, 국적, 사회, 정치적 견해 때문에 거부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6. 민주적인 삶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써 도서관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이나 문화활동 및 현재의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환영해야한다.

이렇듯 도서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 3. 북한도서관과 사회

### 3.1 북한사회와 북한문화

앞에 세라가 언급한 것처럼 도서관은 사회의 산물임으로 그 사회를 알지 못하고는 도서관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세라의 주장을 바탕으로 북한사회가 이루고 있는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8조를 보면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장 한다”고 밝힘으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중심의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문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북한사회의 학문, 신념, 이론은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수령의 올바른 지도로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 한다”는 기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말한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이념에 실체를 부여하고 추진하는 사회조직은 조선노동당으로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사회조직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도구 및 물리적 설비를 나타내는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 수준은 열악한 기술 자본으로 IT산업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먼저 인재양성 및 IT마인드 조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2] 북한의 문화

### 3.2 사회기관으로서의 북한도서관

이 중 세라는 도서관을 사회조직의 하위구조인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기관 중 하나로서 도서관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도서관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관인

지 살펴보자.

먼저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도서관은 “책을 비롯한 출판물을 정비, 보관하고 사람들이 널리 입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이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도서선전과 책읽기 지도를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 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 하는 힘 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보관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에서 승인된 교육법 제20조에 의하면 “교육기관은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나눈다. 학교교육기관에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과 박사원 같은 것이, 사회교육기관에는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 야영소, 체육관 같은 것이 속한다.”라고 명시함으로 학교교육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도서관을 사회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도서관의 기능을 정리하면  
 ① 문화교양기관: 책과 출판물을 정비, 보관 하여 사람들이 널리 입을 수 있도록 빌려주고 문헌재부를 보관 관리 하는 중요한 문화기관  
 ② 사회교육기관: 유일사상 체계 확립, 사회주의교육, 3대(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의 수단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도서관의 기능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화의 의미는 앞에 세라가 언급한 문화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라가 언급한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이해의 조직화 및 통합’의 의미를 지녔고 북한도서관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화는 ‘문명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기능인 문화교양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문화를 이루는 이론인 주체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실현

하기위한 교육제도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3.3 북한도서관의 장서개발

#### 1) 사회의 알권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도서관은 문화교양기관으로서 책과 출판물을 정비, 보관 하여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고 문헌재부를 보관 관리 하는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출판물에 대한 규제와 선정으로 순수한 문화교양기관 이전에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김일성 종합대학사회과학도서관의 장서를 살펴보면 사상 문학적 영역의 장서보다는 기술서나 과학도서류가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문학서와 같은 경우도 음모와 질투가 주제로 된 책은 출판정책상 읽힐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함경남도도서관 또한 장서의 사회과학30퍼센트와 자연과학의 70퍼센트의 장서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서개발의 형태를 보자면 도서관은 일반국민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해야 한다는 '요구이론'보다는 최고의 장서만을 구비한다는 '가치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치이론은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도서가 "최고"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 도서관에 장서에 개발에 있어 이러한 질문 한다면 북한도서관의 장서개발에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러한 장서개발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2) 민주적 커뮤니케이션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세라는 도서관을 문화의 요인들을 문헌과 음반 등으로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기관으로 보고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대중매체와 달리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커뮤니케이션 기관이라고 말하며 대중매체는 권위적이고 도서관은 민주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메시지에 해당 될 수 있는 장서들이 편향된 주제의 장서로 구성된다면 이러한 장서로 이루어져 있는 도서관 역시 더 이상 가장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기관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 4. 결론

세라의 도서관과 사회에 대한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도서관을 살펴보았다. 세라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문화를 설명하면서 문화요인들 중에 어느 하나에 치중된 모습을 보이면 그 문화는 왜곡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문화는 이념에 치중된 사회로서 이념에 실체를 부여한 사회조직의 기관에 속한 도서관 역시 그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서개발에 있어서 이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영향을 미쳐 편향된 장서개발로 사회의 알권리와 민주적 커뮤니케이션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저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들이 중시하는 사회이념을 실행하기 위해 도서관을 널리 이용하는 자세는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 역할, 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J.H.Shera. 1986.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 윤영욱김, 구미무역(주)출판부
- 남태우. 2001. 문헌정보학의 철학과 사상, 김상미공편, 한국도서관협회
- 남태우. 2003. 셰라(Shera)의 도서관 인식론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 p199-230
- 이종석. 2000.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 김형찬. 1990.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 조선말대사진(1). 199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연합뉴스. 2001. 북한연감, 연합뉴스
- 국제정보연구원. 1999. 북한정보총람, 국제정보연구원
- 송승섭. 1994. “북한도서의 기능과 현황 상,하”. 북한 1월호 : p152-159, 2월호 : p142-149
- 송승섭. 2001. “북한 사람이 본 그들의 도서관”. 도서관 여름호 : p72-99
- 송승섭. 2003. “북한의 관종별 도서관 현황과 특징”. 국회도서관보 제40권 제9호 통권 제295호 : p56-71
- [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1\\_view.jsp?code=9&title=가.%20주체사상](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1_view.jsp?code=9&title=가.%20주체사상)
- [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1\\_view.jsp?code=123&title=가.%20체제%20성격](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1_view.jsp?code=123&title=가.%20체제%20성격)
- [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1\\_view.jsp?code=116&title=나.%20IT산업%20육성%20동향](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1_view.jsp?code=116&title=나.%20IT산업%20육성%20동향)
- [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1\\_view.jsp?code=54&title=가.%20사회정책](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1_view.jsp?code=54&title=가.%20사회정책)
- <http://unibook.unikorea.go.kr/emboard>